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16, 갈등하는 왕국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6, 갈등의 왕국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왕국을 평화의 왕국으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이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의 제시 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물의 실제 현실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이 아닐 때가 가장 많습니다. 역대기의 독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잘 알 수 있듯이, 그의 통치는 평화롭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로 매우 갈등이 많았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왕국의 분열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모든 독자는 앞으로 있을 통치에 대한 그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따른 통치는 발전된 갈등을 보여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또한 이를 사용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자비를 보존하고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솔로몬 이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겪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들 왕들 중 일부를 매우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 모두는 이런 저런 종류의 실패를 겪었고 종종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자주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다음 부분은 솔로몬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의 시대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시리아인들이 북방을 포로로 잡은 시기가 포함되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의 저작에서 앞서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진 아하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모든 것이 타락한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솔로몬 이후 처음 두 왕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오로지 유다 왕들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물론 예훗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예루살렘의 왕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왕국이 대표되는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0장부터 왕정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귀환에 대한 인식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집트로 도망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중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지만, 역대기 기자는 여로보암이 돌아온다는 사실과 여기서 다윗의 확언을 뒤집는 북쪽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모든 용사와 함께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아 우리는 네 것이니 우리의 미래는 네게 있느니라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북쪽 부족들이 모두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그들의 경험이 가혹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느니라 다윗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만트라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징용노동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징용노동을 담당한 사람이 하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통치를 확립하려고 세 겹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북쪽 지파들이 그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 큰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과세 수준, 특히 징집 노동에 대해 매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세금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합니다.

나는 때때로 소득이 있다는 뜻이므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또한 내가 이러한 세금으로 인해 일부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경우에는 세금이 수입에 비해 불균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혜택이 사용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자신의 일과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그만두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정부를 위해 직접 일하는 것입니다.

그건 100% 과세인데, 제가 경험해 본 일이 아닙니다. 물론 1년의 일부에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12개월 중 3개월이더라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에 대한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금을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상 솔로몬이 행한 것만큼 세금을 인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완전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도람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제시하는데, 그의 이름은 스마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연설을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에게 그들이 형제임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왕국의 본질적인 분열로 인해 르호보암은 유다에서만 왕이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으로서 역대기 기자는 그가 성읍들을 강화한 방식과 그가 대가족의 축복을 받은 방식에 관해 그에 대해 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르호보암이 왕국 분열에 책임이 있지만, 연대기 기자는 르호보암보다 그 분열에 대해 여로보암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히 르호보암의 후계자 아비야의 통치에서 그 점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르호보암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사이에 왕국이 분열된 이후의 일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왕의 연설이 있습니다.

역대기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야 왕은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사항을 실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치적 안녕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약속으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위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솔한 악당들이 경험이 없는 르호보암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경솔한 악당들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그들이 르호보암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을 이겼습니까? 연대기 기자는 여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르호보암이 경험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험 부족의 결과는 이러한 분열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북방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실제로 화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으로 이스라엘과 북방 지파들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여로보암의 심판입니다. 남방 왕 아비야는 북쪽 국경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쪽 경계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북쪽과 서쪽에 있는 베델 주변 지역인 베델로 대표됩니다. 그것은 두 왕국 사이의 경계선을 형성했습니다. 아비야는 그 국경을 회복했고, 여로보암은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비야는 연대기 기자의 평가에 따르면 모범적인 왕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입하는 방식,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막는 방식, 그리고 유다의 통치와 유다 영토를 보존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모범적입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l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6, 갈등의 왕국입니다.